

# 전주상의 “회장 선거 절차대로 추진”

### 전주상의 의원 57명 정상화 위한 긴급 기자회견 관련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반박

전주상공회의소(이하 전주상이라 한다)는 새해 2일 전주상의 조병두 의원의 56명의 의원들이 개최한 전주상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주상의는 지난해 12월 11일 조병두 전주상의 의원의 56명이 임시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해 전주상공회의소는 정관 규정(제29조)의 15일 이내 임시의원총회 소집 규정(12월 26일 이내)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바쁜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라고 했으나 이는 연발 연시 바쁜 입장을 고려해 회장단 회의, 상임위원회의와 연계해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2월 21일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의가 바로 끝난 후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의원총회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상 과반수인 50명이 참석하지 않

아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것에 불과했으나(45명 참석) 무산된 책임을 오히려 상공회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 1,300명의 회원중에 무려 973여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주상의는 광주교범의 직무 정지처분 사실은 신입회원의 신규 가입이 아닌 정관 제13조(선거권)제1항의 규정 중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의거 2개기의 회비 납부가 아닌 1개기의 회비 납부만 회원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시방법원에서도 1개기의 회비 납부 회원도 선거권이 있음을 판결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관 제12조(자격및가입)제5항에서는 본 회의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즉, 회비납부 여하는 회원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주상의에서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의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2회에 걸쳐, 미납 회비 납부를 고지했다. 2023년에도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70호, 2023년 2월 6일)을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회비수입은 매년 예상수익의 이상으로 납부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5대 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정 등을 의원총회에 회부하지 않고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선거일정 등을 정한다면 심각한 이해 충돌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주상의는 “현재는 제24대 의원 및 회장이고 제24대는 오는 2월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5대 회장은 새로운 25대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 몸담고 있는 24대 의원이나 회장이 25대 회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에 있을 예정인 정기의원 총회를 앞두고 1년여 동안 공석으로 있는 감사 1인을 조속히 선출할 것을 촉구하는데 대해과 관련, 전주상의는 상의 정관 임원의 구성에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2인 이내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라고 했다.

당초 감사 2인이 있었지만 감사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궐위돼 현재 1명이 감사를 맡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기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선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신년 초부터 전북지역 헌혈 보유량 확보를 위해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 혈액 수급 어려울 때 마다 동참

### 롯데백 전주점, 신년맞이 헌혈캠페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신년 초부터 전북지역 헌혈 보유량 확보를 위해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헌혈은 동절기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지역 내 지속적인 헌혈 보유량 감소추세를 접한 롯데백화점 전주점 직원들이 헌혈을 하겠다고 직접 요청에 따른 것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005년 생명의 헌혈을 시작으로 매년 구

준히 헌혈과 헌혈증 기부에 동참해왔으며,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 단체 협약을 지난 2015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이 어려울 때 마다 헌혈에 동참해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1층 광장에 헌혈 차를 배치해 백화점 임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헌혈 행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헌혈증 기부도 함께 진행했다.

/김옥기기자

## 전북경진원 임직원들 신년 맞이 ESG 경영 선포식·교육 실시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베스트 파트너’ 비전 제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 임직원들이 신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선포식 및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베스트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도민이 함께 성공하고 성장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지향하고자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행사는 ESG 경영 선포식으로 시작

하였다. 경진원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친환경적 사업 적극 추진 △양질의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한 사업장 조성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정립 등을 선언하였다.

선포식 이후 진행된 ESG 경영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를 초빙하여 키워드로 알아보는 ESG, 기업의 ESG 활동, 경진원의 ESG 경영 등에 대하여 강의의 들으

며 전직원 ESG 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경진원 모든 경영 활동에서 환경보전, 포용적 성장,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이를 위한 기본 지식을 쌓았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은 “전직원 선언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ESG 기본 개념과 여러가지 예시를 알게 되어 ESG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한 층 깊

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여봉 원장은 “전라북도 출연 공공기관으로서 기관 내 ESG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모범 기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역 기업에 대한 ESG 경영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ESG 경영 추진위원회 운영, 친환경 에너지 차량 운영,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청렴 윤리경영 확산 등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 상권 활성화 기폭제 역할

###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국비 지원 다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전북지역 많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익산중앙시장 주유주차장 신규조성으로 45억원(국비 27억원, 지방비 18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주차장 개보수사업으로 전주모래내시장은 6,500만원(국비 3,900만원, 지방비 2,600만원)을, 군산공설시장은 8,500만원(국비 5,100만원, 지방비 3,4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는 전주서부시장상점가가 선정되어 4.6억원(국비 2.3억원, 지방비 2.3억원)을 지원받아 자체 특화상품 개발, 문화블럭 조성, 서부시장 가뭍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장 일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매당거리상점가, 김제전통시장, 남원공설시장 등 총 12개 시장이 선정되어,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몰 공용공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청년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익산중앙시장 청년몰(상상노리터)이 선정되어 3.6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1.8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고창전통시장이 1억2,200만원(국비 6,100만원, 지방비 6,100만원)을 지원받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점포 내 전기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인태용 청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곧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의미이다.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많은 시장과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김제농협, 시무식으로 2024년 갑진년 업무시작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2024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2일 본점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지점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업무대갈기, 고객더알기, 고객민족CS 실천사항을 기반으로 농협의 장점을 살려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인실익증진을 위해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농협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마부작침(磨斧作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농업인소통증진과 농업

인이 행복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성과를 이루는 2024년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